



ITU-T SG3

인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철수
 인제대학교 전산학과 대학원 박사, 손진혁
 ETRI 단장 박기식
 ETRI 선임연구원 강신원, 최태상

1. 출장 개요

- 출장자 : 김철수(인제대학교)
- 출장지 : 제네바(스위스)
- 출장기간 : 2005년 1월 24일 ~ 2005년 1월 28일
- 출장 목적 : ITU-T SG3 정기회의 참석

NGN Charging Issues 관련 기고서 발표(D.12)

2. 회의 주요 내용

전체 회의 이슈

ITU-T SG3는 전기통신 요금 및 정산을 위한 회의로 금년 1.24- 1월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기에는 이미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각 SG 이 Management 팀이 새로 구성되었고, SG3의 경우, ETRI의 박기식 박사가 Chairman으로 선임되어 회의를 주재한 첫 회의였다. Mr. Blausten, Mr. Foldvari, Mr. Kushtuev, Mr. Ndaro, Mr. Thomas, Mr. Tsugawa 등 부의장의 협조하에 회의가 진행되었고, WTSA-2004(Florionopolis, Brazil, 2004.10) 이후 2005 ~ 2008 회기의 첫 회의로, 이번 회의 주요 내용으로 새로운 회기의 작업을 담당할 SG3 하부 조직 구성과 각 조직 의장단 선출 및 업무 할당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기 SG3의 조직구조는 Working Party 3개와 Terms and Definition 라포처 그룹 및 3개의 Regional Tariff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 WP1은 NGN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의 요
금관련 표준을 담당
- WP2는 PSTN, Mobile 등과 같은 기존의 통신서
비스에 대한 요금을 담당

- WP3은 효율적인 국제 통신서비스를 위한 경제
및 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
- Terms and Definition 라포처 그룹은 SG3에
관련된 모든 용어 정의를 회원국에서 요청한 6개
국으로 번역하고 통일하는 역할을 담당

SG 3 의장단 및 산하 작업반 의장단/라포처 그룹 구성

의장단	이름	비고
SG 3 의장	Mr. Kishik PARK(한국)	
SG 3 부의장	Mr. Edmond BLAUSTEN(미국) Mr. Alexander I. KUSHTUEV(러시아) Mr. Cleveland THOMAS(트리니다드 토바코) Mr. Agoston FOLDVARI(헝가리) Mr. Matano NDARO(케냐) Mr. Seiichi TSUGAWA(일본)	
SG 3 산하 WP 1	Mr. Edmond BLAUSTEN(미국, 의장) Mr. Agoston FOLDVARI(헝가리, 부의장)	
SG 3 산하 WP 2	Mr. Seiichi TSUGAWA(일본, 의장) Ms. Claudia CONTRERAS de ALFARO(과테말라, 부의장)	
SG 3 산하 WP 3	Mr. Cleveland THOMAS(트리니다드 토바코, 의장) Ms. Laetitia DUFAY(프랑스, 부의장)	
Promotion Officer	Mr. Alexander I. KUSHTUEV(러시아)	
Liaison & Coordination Officer	Mr. Matano NDARO(케냐)	

라포처 그룹	이름	비고
IMT-2000	Mr. L. Martinkovics(미국)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vity	To be nominated	
IIC traffic flow methodology	To be nominated	
IP telephony	Ms. M. Cade(미국)	
NGN	Mr. A. Foldvar(헝가리) Mr. Chul Soo. Kim(한국)	
Alternative Calling Procedures	Mr. O. Al-Rashdan(요르단)	
Mobile Termination	Mr. S. Sharma Ms. E. Hondo	
New accounting procedure	Mr. D. Odegov(러시아)	
Review of ITRs	Mr. B. Lerner Mr. P. Oliva Brunet Mr. F. Andzadzi-Andjai	
Network externalities	Dr. W. Neu Mr. V. Affleck(영국)	

각 Working Party 및 기타 Working Group 회의의 내용 중 대표적인 안건인 IP-텔레포니, IMT-2000, IIC 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보고 및 수정으로 진행되었고, 이번 회의에서 가능 큰 논쟁이 되었던 것은 WP1의 NGN과 관련한 안건이었다. 지난 2004년 5월 회의부터 현재 NGN과 관련되어 SG3에서도 관련 Question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계획되어 왔고 한국의 대표들의 NGN 과 관련한 기고서 발표 등의 역할로 NGN Charging and Tariff 이슈를 다룰 라포처 그룹이 결성되었다. 이는 한국의 BcN의 발전 방향과 함께 한국 기술을 국제 표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NGN의 'convergence' 과 같은 메커니즘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charging 이슈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회원국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어야 하겠다.

[WP별 주요 회의 내용]

■ Working Party 1

본 WP는 25일 오전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6일 오후에 두 번째 회의를 하였으나 기상이변으로 회의가 중단되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27일 1:30부터 1시간 특별 임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P Telephony와 관련 이슈를 위해 Ms. Marilyn Cade, USA가 이끄는 라포처그룹이 지난 회의때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먼저 라포처의 지난 회의 이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였고, 본 이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IP Telephony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는 SG 2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가기로 결정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e-mail 리스트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차

기 회의까지 진행하도록 하여 회원국들의 충분한 기고가 있을 경우 차기 회의 바로 전 주에 중간 라포처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다.

IMT-2000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가 아니라 technical operational platform으로 정의하였으며 IMT-2000 관련 권고안을 제정할 경우 중복성을 점검할 것과 IMT-2000의 현재 implementation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권고안의 작성이 필요 없으며 대신 기존의 D 시리즈 권고안의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vity 이슈는 지난 회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이슈였고 본 회기 동안에도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회 때 D.50 권고 안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nternet Traffic Flow Methodology 이슈도 지난 회기 동안 IIC 이슈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이슈였으며 본 회기 동안에도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Mobile Access - Home Country Direct(HCD) and IFS 이슈에 관해서 신규 기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본 회기 동안에도 Living list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

Methodology for IPDR(IP Detail Record)와 Enhanced Signaling 와 관련하여 더 이상 WP 1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IPDR.org와의 공식적인 liaison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SMS/MMS와 Multimedia 본 WP 1의 active list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였고, Multimedia 정의에 대한 논쟁과 동 이슈는 NGN 범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일단 현 상태로 두기로 결정을 하였다.

NGN 이슈는 가장 장시간의 논쟁이 이루어진 분야로 한국에서 2개의 기고서가 발표되었다. D11에서 NGN관련 Charging 모델 연구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 사항과 권고안 시작을 제안하였고 D12에서 NGN과 관



련한 전체적인 소개와 관련 Charging 이슈들을 언급하였다. 발표 이후 NGN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ITU-T SG간에 명확히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의 정의를 위한 SG 2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목요일 임시 회의에서는 기고서 발표 및 SG 13의 Liaison 문서 설명 등을 바탕으로 WP 1의 NGN work plan과 SG 13에 보낼 Liaison 문서를 작성되었다. 또한 이러한 Working plan을 시행할 조직으로 라포처 그룹을 결성하자는 제안들이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주 및 영국의 반대로 e-mail Reflector를 운영하는 형태로 일단 결정되었고 다시 이 부분은 여러 형태의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 폐회 총회에서 라포처 그룹을 결성하는 형태로 최종 조정되었다.

■ Working Party 2

모바일 착신 요금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와 일본 기고서가 발표되었고, 각국이 착신 요금체계 및 환경이 다르므로 향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정확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라포처와 코-라포처가 선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Reflect Group이 만들어지며, 라포처 그룹은 다음 회기에 모바일 착신 요금 관련 Questionnaire 초안을 포함 기고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권고안 개정 권고안 D.150 이의없이 개정이 승인되었고, 권고안 D.195 관련하여 로스텔레콤은 국제통신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산절차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Daniel Odegov (Rostelecom)가 라포처로 선임되었다. 권고안 D.4와 D.180 관련하여 일본에 의하여 개정이 제안되었으며, 호주의 코멘트에 의한 약간의 수정 후 개정이 승인되었다.

E.164 국가코드 공유와 관련하여 INMARSAT은 UN이 관할하는 재해지역에 새로운 국가번호 부여의 필

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제안된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전용선과 관련하여 INTUG은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하여, 가격인하를 위한 전용선에 대한 경쟁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논의 결과 동 기고서는 관련 정보로만 이용하기로 하였다.

국제 모바일 로밍 이슈에서 INTUG은 현재 국제 글로벌 로밍의 요금이 높으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의 하락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의장은 동 기고서가 특별한 주장이 없으므로 동 기고서는 승인없이 관련정보로 이해하기로 하였으나 만일 기고서로 인정되기를 원한다면 다음 회기에 기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Working Party 3

기고서 승인과 관련하여 TD 21은 약간의 수정 이후 승인되었으며, 2004.6 회의에서 논의된 작업반 활동 관련 COM3 R22는 수정없이 개정안이 승인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외부성 이슈에 있어서, Dr. W. New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다면 소비자후생 및 생산자후생이 증대되어 사회후생도 증가된다고 언급하였다. Dr. W. New는 라포처 그룹의 의장으로 Mr. V. Affleck(영국)은 코-라포처로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체통화 절차와 관련하여 TD 9와 D4가 논의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와 논의를 위하여 케냐를 의장으로 한 소규모 초안작성 그룹을 만들고 요르단 텔레콤을 의장으로 한 라포처 그룹은 INTUG, UK, USA, Kenya 등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제통신규정(ITRs)과 관련한 TD 12와 D8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조만간 열리는 IPRs 관련 Council Working Group의 권고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였고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보고할 레이송으로 선임되었으며, 또한 미국은 그룹의 의장으로, 쿠바와 가봉은 코-리포처로 선임되었다.

3. 제출 기고서 내용

- 문서 번호 : COM D 12
- 기고서 명 : NGN Charging Issues
- 기고서 내용 : NGN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Charging 이슈에 대해 일부 언급하였음,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NGN charging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Question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임
- 제출 결과 : WP 1에서 발표되었고 그 결과 NGN 라포처그룹을 생성하였으며 신규 연구 항목과 SG 13에 보낼 Liaison 문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반영되었음

4. 의견 및 정리

SG3는 전기통신 요금 및 정산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하는 그룹으로, 한국대표단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의 경우 참가자가 계속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PSTN의 경우 Charging 및 accounting, settlement가 비교적 간단한 과금 요소로 인해 굳이 표준회의를 참석해야 할 이유가 다소 적었으나, 지금은 전세계의 통신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All IP를 목적으로 하는 NGN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전화 정산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NGN charging은 다양한 과금요소와 정산요소가 있으므로 각 통신 사업자들은 무선 혹은 유선에 유리한 과금요소와 그에 따른 Weight 연구가 뒤따라야만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아울러 요금의 합리적인 책정이 뒤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음성서비스 시장의 포화로 인해 수익률이 저하되었고 투자 대비 수익이 저조한 IP트래픽에 대한 과금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번 회기를 통해 완성될 NGN charging 관련 표준안 마련에 국내 통신업체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사료된다. **TTA**